포●커●스

'포장산업의 미래 연구투자에 달려있다'

김재능
미시간주립대 식품과학과 박사과정

지난 11월 8일 한국포장학회가 연 제1회 국제심포지엄의 쟁쟁한 연사들 가운데 국내 인사가 한 사람 있었다. 선진국의 식품포장산업 동향과 전망을 발표한 김재능 씨가 바로 그다. 현재 그는 미시간 주립대 식품과학과 박사과정중에 있다.

"학위 연구 테마는 식품의 포장과 보관수명의 관계를 고차적인 수학을 이용해 컴퓨터로 모델링을 한 것과 실제 실험관측 사이의 차이를 구명하는 작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간극을 정밀하게 극복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포장설계의 전산화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포장학과에는 박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식품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는 그는 내년부터는 포장학과에서도 박사과정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식품포장의 전망이라 함은 미래에 어떤 식품/포장이 각광을 받을 것인가로 초점이 모아지는데 결국은 소비자의 니드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식품포장은 환경문제를 도울 수 있다는 관점을 지녀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앞세우는데 반해 미국의 식품산업은 철저히 소비자 연구에 중심을 둔 마케팅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비교해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 수준에 대해서는 재료나 기법 등은 단기간에 좇아 가는데 관리체계나 전체적인 시스템은 아직 낙후돼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선진국보다 더 나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몇 십년 뒤져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도 장차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R&D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국내 포장업계 형편상 단일기업이 하기 어려우면 여러 기업이 연대해 십년 이십년을 내다보고 공동으로 연구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타 산업에 비해 연구투자가 거의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간다면 포장산업의 미래도 극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도 몸담은 이력이 있는데 최근의 개발원 동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 듯했다.

"개발원의 포장관련 업무라든가 인력양성이 얼핏 눈에 띄지 않았으나 막상 밖에 있으니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개발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포장산업 발전을 선도해 왔으나 지금은 그 기능이 완전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시대역행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의 연구투자와 병행해서 개발원 같은 기구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만이 21세기 포장산업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은 신랄하다. 개발원에 더 이상 기대할 여지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포장협회라든가 학회 등이 중요한 대안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김재능 씨는 해외통신원으로서 본지 편집에도 관여하고 있다.

"포장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한국포장산업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해 보겠다는 이유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노력이 포장정보의 발전과 독자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해야 겠지요."

계획대로라면 그는 내년 6월쯤에 박사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